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

金 丁 均*

93년 중국 경제: 경기 과열과 긴축 조정 정책 실시

◆ 상반기의 고속 성장과 부작용

92년초, 보다 확고한 개혁·개방을 천명한 鄧小平의 「南巡講話」이후 93년 상반기의 중국 경제는 13.9%라는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비로 볼 때,총공업 생산 증가율 25.1%,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 61%, 총소매 매출액 증가율 21.6% 등 전체 경제 활동의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반면, 상반기중 중국 경제는 심각한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부족 현상이 성장 속도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물가 불안의 심화로 표출되었다.[1] 또한, 경제 운용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 증대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존하는 低효율적 생산 방식이 계속되고, 자금의 흐름이 경색되어 안정적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2] 소유 주체간, 지역간, 都農間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 하반기 인플레 현상 지속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全人大를 계기로 은행 대출금의 강력한 회수, 행정 비용의 절감, 경제 개발구의 난립 규제, 기본 건설 사업 규모의 삭감, 가격 개혁의 일시 중단, 금리 인상, 中國人民銀行의 직능 강화 등 16개항의 긴축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작년 말부터 이미 논란이 되어 왔던 경기 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긴축 조정 정책과 아울러 28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홍콩 언론 보도)가 해외로 부정 유출된 중국 최대의 금융 사고 발생과 중앙 정부의 5대 부정 부패 추방 운동 추진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을 받았다.

實例로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총공업 생산율이 지난 6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

* 선임연구원, 대만국립정치대학 법학박사, 중국 정치·경제 전공

1)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5高 3隘」로 표현되는데, 5高는 공업 생산액 증가, 고정 자산 투자액 증가, 화폐 발행량 증가, 수입 증가, 물가 상승 등이며, 3隘는 자금 애로, 운송 애로, 에너지 공급 애로 등을 의미한다. 그중 물가는 93년 상반기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전국 소매 물가는 10.5% 상승하였으며, 특히 35개 대도시 근로자 생계비 지수는 17.4나 상승하였다.

2) 금년 상반기중 국영 기업의 생산액은 공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내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영 기업, 집체 기업, 사영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업 생산액의 증가율이 각각 10%, 45%, 70%를 기록하여 국영 기업의 저효율을 대변하고 있다.

으며, 集體 所有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鄕鎭 企業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규모는 7,8월중 전월비 각각 5.1%, 1.7% 하락하였다. 또한, 8월중 총소매 매출액은 7월비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정책이 중국의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이브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10% 전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93년 하반기의 중국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감속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93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92년의 12.8%와 비슷한 13%대

<표 1> 93년중 중국 경제 주요 지표 추이

항 목	92년	93.1-6	6월	7월	8월	9월
경제성장률	12.8	13.9	-	-		
공업총생산 신장률	20.8	25.1	30.2	25.1	23.4	19.0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	40.7	61.0	-	-	18.1	-
소비자 물가(35개 도시)	6.4	17.4	21.6	23.3	22.2	20.7
총통화 증가율	31.0	26.0	-	-	-	22.0
수출 신장	18.2	4.4	-9.2	6.6	-0.1	6.6
수입 신장	26.4	23.2	8.2	39.9	37.4	29.9
무역수지(통관, 억 달러)	44	-34.9	-4.2	-11.4	-10.8	-12.9

자료: 한국무역협회, Asian Wall Street Journ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주: 전년동기대비(%)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9월말 현재 전년비 20.7% 상승하여 여전히 高인플레 상태에 있으며, 건설 관련 투자는 1-9월중 전년 동기비 61.7%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수입 신장률이 同 29.9%에 달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1-9월중 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연말까지 긴축 조정은 내수 과열을 주도한 부동산 건설 부문과 과잉 생산 부문의 투자 억제에 집중시키고, 수출용 제조업, 농업 부문,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10월 들어 등소평이 경제의 고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外向型 경제 정책의 지속적인 추구로 수출드

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3]

1994년 중국 경제의 예상 주요 변수와 전망

◆ 긴축조정 정책의 향방 및 94년 전망

내년에도 긴축 조정 정책은 과거에 비해 부분적이고 완화된 성격을 띨 것이다.[4] 지금까

3) 중국국가통계국 및 중국사회과학원의 합동보고서에 의하면, 93년 중국 경제는 정부의 대대적인 과열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13.5%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함.

4) 금년 7월부터 실시된 긴축조정 정책은 지난 89년 治理整頓 때와 같은 급격한 처방보다는 일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완화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①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연계 정도가 88년에 비

지 중국 경제의 경기 순환 주기가 5년이었던 점과 개혁·개방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했던 긴축 조정 정책의 효과가 평균 1.5 년 - 2 년 정도 지속된 점에서 볼 때, 94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시 기간의 長短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鄧小平의 意思에 따를 것이지만, 상기 정책의 실효 정도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反부패 운동의 강도 및 지속 여부와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상당 부분이 시장 경제화되어 있다는 점과 아울러 94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5大 개혁 방안[5] 및 3 년 이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새로운 틀의 구축 등은 중국 경제 통제력의 개선과 안정성을 높여 갈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실시된 긴축 조정 정책의 성격 및 영향을 감안할 때, 9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래에 언급한 중국 경제 관련 3대 예상 변수에 의한 이변이 없는 한 10%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94년 중국 경제의 3大 예상 변수[6]

< 鄧小平의 사망 >

중국은 鄧小平의 노령과 건강 악화설과 더불어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부패의 만연, 지방 분권화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의 알력, 재정 적자의 확대, 지역별·계층별 소득 격차 등 현재 중국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 외에, 현재 과열 경제의 대처 방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노정되면서 등소평 사후의 중국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다.

鄧小平 死後의 중국 상황을 예상해 볼 때, 중국이 권력의 재분배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0여 년 동안 鄧小平에 의한 주도면밀한 후계 구도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온 점. 둘째, 일시적이나마 鄧小平이외의 다른 '혁명 1세대'에 의한 鄧小平의 조정 역할의 접수로 권력층 내부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 공산당내 현 정권 유지를 위한 계파를 초월한 강력한 공감대가

해 그 폭이 넓어진 점; ②자체 경제력의 확대로 과거와 같이 정치적이고 급격한 방법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③ 중국 정부가 이미 88년의 긴축조정 정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만약 과거와 같은 지나친 긴축 조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부작용이 江澤民, 朱鎔基 등 주로 개혁파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鄧小平의 후계 구도에 악영향을 미쳐 중국 경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개혁·개방의 큰 흐름, 즉 지속적인 성장에 위배될 정도의 정책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홍콩 大公報의 보도에 따르면 11월중 개최될 14기 3中全會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국가 소유인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 ②중앙과 지방의 세금 분리, ③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작능 분리, ④환율의 통일, ⑤공평한 세금 부과 등이다.

6) 현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으로서는 인플레와 물가,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약화, 중앙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 금융 제도의 부실, 비능률적인 국영 기업, 가격 개혁 문제, 농업 문제, 지역간·도농간·계층간 소득 격차, 부정부패의 만연,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나, 94년도 중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예상 변수는 본문에서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형성되어 있다는 점. 넷째,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점. 다섯째, 중앙 집권에 의한 강력한 정부를 희구하는 인민들의 기본 마인 드와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의 정치 문화. 여섯째, 개혁·개방으로 인해 인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富가 증대되었다는 점. 일곱째, 이미 세계 경제라는 큰 톱니와 맞물려 돌아가는 중국 경제의 현실 등이다.

따라서, 현 중국이 처하고 있는 각종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鄧小平 사후의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鄧小平 路線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다만, 당의 핵심부내 개혁·보수 양파벌 간의 권력 재분배 과정에서 개혁·개방 정책의 폭과 속도가 다소 영향을 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장악하는가는 향후 경제 정책의 운용 형태 및 그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할 때, 鄧小平의 사망이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정치적 회복력을 보임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고 소폭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의 GATT 재가입 >

중국 측은 GATT 재가입에 따른 여러 利點을[7] 고려, 최근 2년 동안 사전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면에서 작년말 HS 제도(국제통일상품분류)를 도입하고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 회계 기준을 국제 형태로 전환, 유통, 운수,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있으며, 특히 93년 3월초 美中 통상 장관 협상에서 중국 측은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EC 등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이 그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 측에 대해 무역 역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8]

결론적으로 중국의 GATT 재가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며, 재가입에 대한 전망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특히 최근 美中 양국간 외교적인 마찰로 인하여 미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한 중국의 GATT 재가입은 94년 3월이내 가능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7) 현재 중국 측이 GATT 재가입을 서두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대외 경제 관계에서 GATT 재가입을 통한 경제적 실익의 획득에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①대외 무역 교섭 방식을 현재의 양자간 교섭 방식에서 다자간 교섭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②GATT에 재가입하게 되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미국의 對中 최혜국 대우(MFN) 및 일반 특혜 관세(GSP)의 적용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③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GATT 재가입은 곧 중국 경제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승인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외국 기업에 의한 對中 투자를 확대·촉진시킬 것이라는 점; ④GATT 재가입을 통한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등이 있다.

8) 미국과 EC 등 주요 GATT 가입국들은 중국 측의 성의가 미흡하며, 특히 최종 가입 의정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보아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항, 중국의 무역 제도에 대한 정기 검토, 투명성 보장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요약할 수 있음.

韓中 관계에서 보면, 중국의 GATT 재가입은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중국의 GATT 재가입이 중국의 경제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韓中間 교역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 실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은 GATT를 위시한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신흥 개도국들의 중심 국가로서 증대되어 향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개방·개혁은 서방 기업들의 진출을 크게 유인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의 對韓 투자를 상대적으로 감소 및 중국을 통한 對韓 우회 수출 공세 등이 예상된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철폐>

미국은 美中 무역협정에 기초하여 1980년부터 중국에 대해 MFN을 부여해 왔으나, 그것이 문제로 되기 시작한 것은 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이다. 더구나 작년 美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연장된 최혜국 대우 조치는 인권, 무기 수출, 올림픽 유치 실패, 핵실험 등과 관련된 美中간의 외교적인 마찰로 인하여 그 연장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 문제를 중국측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최대 무역 흑자 상대국이 미국이며, 미국 측이 이 점을 對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의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의 점유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10월) 미국측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對美 무역 특혜를 철회할 것이며 이 문제는 금년 11월에 개최될 양국 정상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인권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내년에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美대통령과 의회가 처음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측에 대해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측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측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對중국 무역 적자액만 하더라도 6월의 22.7억 달러에서 24.3억 달러로 7%로 증가됨으로써 92년의 184억 달러, 91년의 128억 달러, 90년의 104억 달러에 이어 금년에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홍콩을 경유하여 제3국에 수출된 것을 제외할 경우) 이러한 양측 입장은 미국이 GATT를 대신하여 지난 3월초 개최한 美中 통상 장관회담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측이 제시한 중국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은 첫째, 무역 비밀 의정서(Secret Trade Protocols), 수출 보조금, 反덤핑 부문에 대해 중국이 GATT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이 완전한 시장 경

제(Full Market Pricing Economy)로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셋째,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한 외국의 쿼터나 관세 인상과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MFN을 철회할 경우 중국측이 당하는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을 알고 있는 중국은 지난 4월 자동차,항공기 구매 사절단 등을 파견하여 MFN의 연장을 모색해 왔다. 특히 중국측은 GATT 가입으로 미 의회의 연래적 MFN심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GATT보다 국내법을 우선시하는 美 의회의 전통으로 보아 중국의 기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94년 중국에 대한 MFN이 철회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對美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MFN의 연장 여부는 결국, 첫째, 연장 철회로 미국이 외교적,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美정부측이 의회와 국내업자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셋째, 중국측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 등에 달려있으며, 금년 11월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한국의 對중국 투자·교역 전망

<투자 분야>

94년 우리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전망은 첫째, 투자 지역별로는 지금까지의 山東省과 東北 3省(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지역에 대한 편중이 당분간 지속됨과 동시에 서방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와는 달리 남쪽지역 즉, 上海 부근 지역과 지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시 주변,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투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 확대와 아울러 1992년 14大이후 중국측이 밝힌 3차 산업에 대한 개혁·개방 확대 조치로 인하여 유통업, 부동산, 관광 등 제3차 산업관련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다. 셋째, 투자 형태별로는 지금까지의 合資 企業 형태를 위주로 하되, 그동안 중국 경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축적으로 獨資 企業 형태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투자 규모별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당 평균 100만 달러 내의 소규모 위주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中大 규모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분야>

93년중 우리의 대중 교역은 중국의 긴축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하반기 들어 特需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비 40%정도 늘어난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94년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그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측이 예상대로 94년초 GATT에 가입할 경우 수입 장벽 완화로 인한

양국간의 교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다만 94년중 실권자인 등소평이 사망할 경우 정치 권내 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권력의 재분배 현상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상반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의 재분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선 투쟁으로 인하여 정책 결정 계층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關心度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앙 정부에 의한 통제가 느슨해짐으로써 일시적인(중앙의 권력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자율권이 확대되어 우리의 對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對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이고, 또 한번의 中國 特需를 맞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노선 투쟁이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던 중국 공산당내 권력 운용의 특징에서 볼 때, 鄧小平 死後 권력의 재분배 과정은 개혁·개방 정책을 둘러싼 「표면적인 노선 투쟁, 이면적인 권력 투쟁」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되어 기존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특히 보수세력이 득세하여 현 개혁·개방 정책의 폭과 속도를 수정할 경우, 중앙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어져 당분간 각 지방의 자율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당분간 개혁·개방 노선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의 對중국 교역은 당분간 소폭의 증가 혹은 정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 방안

결론적으로 현 중국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설사 상술한 중국내외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 업계의 對중국 투자·교역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야기되더라도 장기간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울러 예상되는 각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업계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권력 배분 과정에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향방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분석; 둘째, 각 지역별, 省別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접근의 차별화 필요; 셋째, 관세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앙 정부의 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변경 무역을 통한 방법 모색; 넷째, 중국내 현지 합작법인 무역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그 동안 홍콩의 중개인, 중국 딜러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중국내 경제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폐단의 개선; 다섯째, 위험 분산과 현지 기업 운용의 원활화를 위해 해외 화교 기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있다. 이외에도 GATT재가입을 위한 사전 조치인 환율의 단일화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